

社會福祉學科의 教育 現狀과 발전 방향

金 聖 二

(梨花女大 社會事業學科)

1. 緒 論

복지 사회 형성의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복지학은 복지 사회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복지 교육 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보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의 사회복지 교육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대표적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여,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社會福祉教育의 歷史的 背景

사회복지 교육이 한국의 대학 과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47년 9월 이화여대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면서였다. 1958년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는 사회사업학과와 기독교학과로 분리되면서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국립대학으로는 1958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대학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된 것이 처음이다. 1959년에 학부생을 모집하였고, 1979년에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 사회 건설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리하여 1950년대말까지 이화여대, 서울대를 비롯

한 4개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회사업학을 교육하게 되었다.

이화여대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와 설립에서 비롯하는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은 주로 미국 전문 사회사업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즉, 6·25 전쟁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용 보호 시설과 각종 사회복지 기관, 그리고 미국계 의원 단체와의 접촉은 우선 기독교 계통의 고등교육 기관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사업의 미래를 담당할 인적 자원 양성을 시도하게 하였던 것이다. 초기 대학의 교육 모델이 미국 사회사업 전문 교육 제도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도 최초의 교수 요원 훈련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M.S.W.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60년대에 들어서 사회사업학과는 계속 증설되었다.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계 단과대학인 한국사회사업대학이 1961년에 설립되고 중앙대(1961), 성심여대(1964), 원주대(1964), 서울여대(1968), 숭실대(1969), 부산대(1969) 등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1969년말에는 모두 10개 대학에 이르렀다.

'70, '80년대에도 사회사업학과는 꾸준히 개설되어 1990년 현재 11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16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총

27 개교가 되며 총 재학생 수 5,500 명에 천 명의 졸업생을 갖고 있는 학과로 발전해 왔다. 대학원 과정은 사회복지학과 계통에 17 개교, 사회사업학과에 8 개교가 있고 총 재학생 수는 5 백 여 명, 졸업생 수는 석·박사 100 명 이상을 배출하였다.

1980 년 이전에는 모두 사회사업학과로 개설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대개 사회복지학과로 개설되고 종전의 사회사업학과 중 일부는 사회복지학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직은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과 내용도 대동소이한 편이다.

그러나 신설되는 학과들이 사회사업학과보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은 단순히 시대적 조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학과와 사회사업학과의 명칭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의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오래된 논의거리이다.

사회복지학은 일반적으로 Social Work 으로 번역한다.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에 대한 용어 정의의 혼돈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는 복지 국가를 구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Social Welfare 를 사용하는데, 이는 대인적 사회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Social Work 은 자선 활동의 합리화·과학화를 기조로 하는 전문 기술 및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미국에서 Social Welfare 는 20 세기초까지도 국가의 무상 원조 개념으로서 경멸적 의미를 내포해 오다가 1960 년대 이후에야 제도적 복지 시책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독일식 국가 유기체설에 입각한 사회 정책과 영국식 복지 제도를 실시하였다가 전후에 미국 Social Work 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 지식 분야를 Social Work 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Social Welfare 는 정부 주도형 사업을 일컫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회사업이 자선 사업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외원이 들어온 이후에 미국의 영향으로 Social Work 의 개념이 도입되어 Social Work 을 번역한 사회사업이란 용어가 전문적 용어로 소개되었다. 그 후 1980 년대를 전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의지가 강화되자, 사회복지라는 의미의 Social Welfare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 과정에 따라 사회사업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모두 존재하게 되었다.

3. 外國의 社會福祉教育

이제까지 한국 대학 사회복지 교육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에서 참고하였던 미국·영국·일본의 사회복지 교육 제도의 변천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같은 용어를 각각 상이한 의미로 사용하게 한 사회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전제로 각각 얼마나 독자적인 사회복지 교육 제도를 발전시켰는가를 살펴 본다.

1) 美國의 專門社會事業 教育

미국 사회사업 교육의 역사는 1898 년 뉴욕 자선조직협회(C.O.S.)가 직원 훈련을 위하여 마련한 여름 훈련 코스로부터 시작되었다. 19 세기 말부터 자원 봉사자의 확보가 어려워져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있는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1 차 대전 후인 1919 년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5 개 훈련 학교들이 모여서 전문사회사업훈련협회(Association of Training Schools for Professional Social Work)를 결성하였다. 1935 년에는 이 협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대학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1937 년에는 대학원 수준에서 사회사업 전문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사회사업을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발전할 수 없는 고학력 전문직으로 자리잡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70 년까지 미국 사회사업협회는 사회사업 석사만을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정통주의를 고수했다. 이러한 대학원 중심의 사회사업 전문 교육 제도의 발달은 물론 미국 사회 저변을 이루는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역사 문화적 배경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사업 교육의 전문화 경향은 1930 년대와 1940 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회 변화와

함께 변경되었다. 대공황으로 공공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자, 이 분야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립대학들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사업 교육을 시작하였다. 공공 복지 기관과 사회 보험, 공공 오락 프로그램에 훈련 받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4년 대학 과정과 1년 대학원 과정으로 사회행정 석사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1939년 이래 대학원 석사과정 2년을 조건으로 하는 미국 사회사업학교협회의 인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1942년이 학교들이 모여서 사회행정학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Administration)를 구성하게 되었다. 1952년 사회사업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로 통합되기까지 두 개의 사회사업 학교 인가 기구가 존재하였다.

CSWE 설립 이후 미국 사회사업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는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속성, 순서, 그리고 통합 문제로 집중되었으나, CSWE 내의 전반적인 세력 균형이 대학원 프로그램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므로 학부 사회사업 교육이나 사회행정 교육에 대한 진지한 연구 및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이 되면서 상당 수의 사회사업가들이 정책·계획·행정 활동에 참여하게 되지만, 1950년대까지의 석사과정 사회사업 교육의 주된 목표는 복지 기관의 직접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이었다. 석사과정의 기초 과목은 사회사업 방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의 역사와 정책, 사회조사, 실습이었으며, 기초 8과목 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사회사업 방법의 공통 기초 기술을 통합하려는 실험이 시도되고, 교과목 편성에 있어서도 종래의 상황별 분류에서 문맥 분야별 분류로 전환하였다.

2차 대전 후 공공 복지 서비스가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전문 인력의 공급은 계속 부족 상태에 머물렀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민권 운동은 미국 전문 사회사업 교육과 실천에 또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사회사업이 빈곤과 차별을 방지하는 사회의 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민에게 중산층의 가치와 태도를

강요했으며, 나아가서는 중산층을 향한 임상적 실천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사회사업가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조직, 소비자 집단, 시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사회 행동 등이 활발해졌다.

교과과정에는 더 많은 사회과학 개념이 도입되고, 관리 및 계획 기술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전공으로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직접서비스), 메조(수퍼비존, 자문, 지원 훈련), 매크로(기관 행정, 계획, 분석, 평가)로 구분되었다. 1970년 미국 사회사업가협회가 사회사업 학사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문학사를 가진 사회사업 실천가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사회사업의 사회사업 석사 교수 전통이 허물어졌다. '70년대 이후 反빈곤 프로그램에 대한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구체적인 사회 서비스들, 예를 들어 가정부 서비스, 노인 가정 장보기, 차편 제공 등이 공공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 직업적 자율성을 극대화한 개인 실천(private practice)의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교육 수준의 다양화는 당연한 것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이러한 다양성을 포괄하는 보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행정가가 요구되었으며, 직접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도로 전문화된 직접 실천가가 배출되고 또 요구되었다.

지금 미국의 사회사업 교육은 네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준학사 과정(associate of arts)은 주로 2년제 대학에서 지역 사회 및 사회적 서비스 테크니션 훈련을 목표로 하고, 둘째로 학사과정은 4년제 대학에서 초급 실천가, 효율적인 시민 참여, 대학원 교육의 준비를 목표로 하며, 셋째로 석사과정의 사회사업 교육은 상급의 직접 실천(direct practice), 관리, 계획 및 연구 분야에서의 다양한 역할 훈련을 목표로 하고, 넷째로 박사과정은 행정, 정책, 상급 특수 실천(advanced specialized practice), 연구, 교수 분야의 지도자적 역할을 준비시킨다.

미국의 사회사업 교육은 다른 나라보다 역사가 길고 연구 활동의 수준도 높다. 현재 당면한

과제는 사회 복지를 사회 사업에 어떻게 통합·연결시키면서 미국 사회 복지의 방향을 주도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2) 英國의 社會行政中心 敎育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 급상승하고 완전 고용이 지속되면서 경기 상승은 인구 이동을 조장하고 이것이 가족 해체를 증가시켰다. 기혼 부인들의 취업과 이혼의 증가, 청소년 비행 문제의 심각화, 노인 인구의 증가 등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인력은 복지 행정 인력과는 다른 종류의 훈련을 요구하였다. 대학에서는 부설 훈련 기관을 두게 되어 1951년 Tavistock Clinic에서 1년 기간의 개별 사회사업 훈련 과정을 개설하였다. 매년 전국의 각 분야에서 유능한 사회사업가를 소수 선발하여 임상 실천과 조사 연구, 수업을 통합한 고도의 임상 실천 훈련을 시작하였다.

사회사업 교육을 대학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려는 노력도 활발하였다. 영국 대학 사회사업 교육의 태두인 Younghusband가 1차 카네기 보고서를 내고, 대학에 소속된 미국식 사회사업 학교 설립을 주장한 것은 1947년의 일이었다. Younghusband는 대학 외부 훈련 기관에서는 사회사업의 전문적·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학에서의 사회사업 전문 교육을 주장하였다. 1차 보고서를 심사한 사회 및 공공 행정 대학협의회(Joint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and Public Administration: JUC)는 모든 사회사업 실천가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generic) 지식과 기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교과목 개발이 대학 사회사업 교육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험 계획에 가장 먼저 관심을 표명한 것은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사회행정 학부였다. 새로이 사회행정학부를 맡게 된 Richard Titmuss는 이 실험을 위하여 카네기 재단에 지원을 신청하였고, 1954년 10월 London School of Economics 산하의 Institute of Applied Social Studies가 문을 열게 되었다. 이

것이 영국 최초의 대학내 전문 사회사업 교육 기관이었다.

1954년 당시의 교과목 내용을 보면 인간 성장 발달, 인간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 사회 행정, 개별 사회사업의 실천과 원칙 이외에 아동 보호, 의료보호, 의료 사회사업, 보호관찰 등 분야별 과목이 있었다. 실습은 1주일에 3일 병행식과 방학 동안의 전일제 실습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연구 과목이 없어 이러한 초기 사회사업 교육의 약점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영국 사회사업 교육의 약점으로 굳어졌다.

미국과 영국의 문화적인 차이, 특히 양국간 사회사업 대상자의 차이를 들어 미국 사회사업 학계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비판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미국 사회사업 학계와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영국 대학에서의 사회사업 교육의 전형은 학부에서 사회 행정 훈련을 받고 대학 과정 수료 후에 사회사업 전공 1년(혹은 2년)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사업, 즉 대인적 서비스 분야의 담당자가 되고 있다.

영국 대학의 사회행정 교육과 사회사업 교육의 차이 및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에딘버러 대학 사회행정학부와 대학원 사회사업 전공 교과과정을 소개해 본다. 학부 사회행정 전공 과목은 첫 해에 사회복지 및 정책 입문, 사회 문제 분석, 시장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욕구 충족 방법, 사회 정책의 목표, 사회 정책의 역사적 이해, 정책 목표와 관련된 인구 및 사회경제 변화, 사회 조사의 방법과 자료, 사회 정책 분석의 개념 등의 강의를 제공되며, 2년째에는 사회 정책 분석의 틀, 서비스와 정부, 사회적 서비스의 재정, 보건 사업의 조직, 대인 사회적 서비스, 교육, 소득 유지 서비스, 주택, 범죄 정책, 이민 정책이 제공된다. 3년째 과정에 들어가 전에 여름 방학 8주간 현장 실습을 해야 하고, 3년째 과정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미국·영국·서부 유럽 각국의 비교사회행정을 다루며, 2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재정, 지역 사회사업의 원칙과 실천, 빈곤, 정신 장애에 관한 사회정책, 복지권, 민간사회적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사회행정 전공과 사회사업 전공이 나뉘어지는데, 사회행정의 학위 프로그램은 사회학·사회행정·심리학 기초가 필요하고, 학부에서 전공한 경우에는 관심 분야의 논문을 쓸 수 있다. 방학 동안에는 모든 학생이 실습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훈련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4주간 현장 실습으로 사전 준비를 하게 한 후 부활절 방학중 1개월 실습, 여름 방학 동안의 8주 실습으로 연결된다. 사회사업 전공의 경우는 사회행정·사회학·심리학의 기초 지식을 전제로 하며, 인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인간 행동과 성장, 사회사업 방법, 실습이 통합되어야 한다. 인간 행동과 발달 과목은 심리사회학 발달 단계를 인간 관계의 기본 단계와 연결시켜 연구하며, 아동기·사춘기·성년기 정신 의학과 의학 정보에 관한 강의를 개설된다. 사회사업 방법 과목에서는 사회사업의 원칙과 실천이 복지권, 사회 행동, 사회사업의 조직과 의사 결정, 사회적 서비스 구조와 프로그램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하며, 개별 사회사업·집단 사회사업·시설 사회사업·지역 사회사업이 포함된다. 실습은 1주일에 3일 병행식으로 하며 대개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경험을 쌓게 한다. 두번째 실습은 이론 과목이 끝난 후 6주간 전시간제로 진행된다. 실습은 병원·사회사업과·장애인청소년과·아동정신과 병원, 사회적 서비스 지방국, 자원 단체 등이고, 수퍼바이저는 전문 자격이 있어야 한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학부에 사회행정학부가 있고 대학원에서 사회 정책 및 계획 전공과 사회사업 전공으로 나뉘며, 대학원 사회사업 전공은 사회행정의 기초 지식을 전제로 한다. 영국의 사회사업 교육은 '사회행정'이라는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무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日本의 折衷式 教育

일본 최초의 사회사업 교육 기관은 기독교 자선 사업가 留岡幸助가 1901년 가정학교 내에 세운 자선 사업 사범학교였다. 그러나 조직적·과학적인 사회사업 개념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사

회사업 교육이 시작된 것은 1차 대전 후였다. 1918년 종교대학(후에 대정대학)에 사회사업 연구실이 창립되고, 1921년 본과에 사회사업 강좌가 개설되었다. 일본여자대학에도 1918년부터 사회사업교육이 시작되었고, 1921년 사회사업학부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기독교 계통 대학에서도 사회사업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회사업 교육은 주로 사립대학에서 시작되었는데 수강생 수와 전임 교수 수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교과목도 사회사업개론, 사회정책, 사회학, 사회문제, 아동보호, 연습, 실습 이외에 경제학·심리학 등 관련 과목이 개설되는 정도였다. 초기 일본 사회사업 교육 제도 도입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교수들은 모두 미국의 사회사업 성립시 미국에서 수학하여 그 중심 인물들과 직접 접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교육 이념이나 이상적 배경은 건국 이념이던 국가 유기체 설이나 독일 사회 정책 이념과는 거리가 먼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이었다. 중·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전시 체제를 강화하게 되고 사회사업도 전쟁 수행에 협력하는 후생 사업으로 변질됨으로써 사회사업 교육의 의미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2차 대전 직후에 설립된 사회사업 학교설립위원회는 일본 사회사업 전문학교 설립의 기점이 되었다. 새로운 공적 부조와 복지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사회사업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당시 점령 총사령부를 자문하던 미국 교수 및 실무자들의 영향이 컸다. 일본 사회사업의 후생 정책적 성격을 쇄신하기 위해 과학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령 총사령부는 1946년 일본사회사업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목에서는 전쟁 이전의 개별 사회사업과 집단 사회사업을 사회사업 방법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새로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 모방한 교육과정은 아니었으며, 역시 사회 정책, 사회 문제 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일본 사회사업 교육과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사회사업학교는 관계 직업 훈련 학교의 성격이 강했고, 전문 사회사업가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루어진 교육 기관이었다. 1947년에

사회사업 전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사업 학부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해 11월 대학 기준에 사회사업 학부 설립이 정식으로 인정되고 설립 기준이 공포되었다.

이 기준의 특징은 전공과목에 최초로 치료(treatment)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필수 과목은 미국 대학원 수준 사회사업 교과과정의 기초 8과목,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 사회 조직론, 행정, 사회 조사, 공적 부조, 의학 지식, 정신 의학 지식이 채택된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 사회 조직론만이 선택 과목이 되었으며 그 비중은 낮았다. 전통적인 일본의 사회사업 교육과정에 비해 사회 문제, 사회 정책 등 사회과학 계열의 과목이 축소되고 반대로 심리학 계열 과목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치료와 행정을 나란히 전공의 중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치료와 행정 과목들을 연결하는 부분이 약하고 선택 과목이 나열식으로 되어 전공 과목의 체계가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이 전후 사립대학 사회사업학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계속해서 과목 배치의 체계성, 방법론과 정책론(처치와 행정)의 불동일, 실습 교육의 미확립, 일반 교양과의 연계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본 사회사업 교육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대학원 중심 전문 사회사업 교육의 영향을 받았으나, 4년제 대학 과정으로 옮겨지던서 그리고 사회사업 분야의 후진성과 상호 작용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되었다. 즉, 전쟁 이전부터 강조되어 오던 사회행정 과목들이 사회사업 교육의 기초과목을 구성하게 되었고, 사회사업 실습이 시설에서도 이루어지며, 종합대학 사회사업 교육이 현장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응용 사회과학으로 정착하기보다 교양 교육과정으로 흐르는 등의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장의 부재 혹은 부족과 관련된다. 일본에서 복지 사무소 주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은 대학에서 후생대신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혹은 후생대신이 정하는 양성 기관이나 강습회 과정을 수료한 자로 되어 있다. 후생대신

이 정하는 과목도 30 과목 중 3 과목 이상을 수료하면 되므로 사회사업 전문 교육 기관이 아닌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3 과목 이상을 공부하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 지방 단체 등에서 행하는 자격 인정 강습회나 통신 교육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현장의 수준 및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일본 대학의, 특히 종합대학의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그 필요성을 사회에 설득시키지 못하고 현장의 현실과 타협·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사회복지 교육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화와 합리주의·과학주의로 이어지는 미국 중류 사회의 가치와 이념이 미국 전문 사회사업 교육의 주축을 형성하였고 1950년대 후반까지도 의료 전문직을 모델로 하여 임상실천적 전문성을 추구하였다. 미국의 전문 사회사업이 사회 개혁과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시민권 운동을 계기로 해서이다. 공공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요구되자, 석사과정에서 임상실천 전공과 정책-계획-행정 전공을 나누게 되고, 석사과정뿐 아니라 학사·준학사 과정에도 사회사업 코스가 개설되었다.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우세했던 영국에서는 대개 사회복지 제도가 형성된 후에 전문화된 대인 사회적 서비스 인력 훈련이 요구되었고, 이에 미국에서 이미 발달되어 있던 전문 사회사업 교육 제도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사회행정 지식이 대인 서비스의 기초가 됨으로써 미국에서 수입한 영국 사회사업 교육은 역사깊은 사회행정 전통에 적응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근대화 초기 단계에서 독일식 사회 정책과 영미식 과학적 자선 운동이 거의 동시에 소개되었다. 전후 일본의 사회사업 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기술론과 전쟁 전의 복지제도 일반에 관한 정책론적 지식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우리나라 社會福祉教育의 改善方向

사회복지 교육은 앞서 미국의 교육을 수입한

영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현재 세 가지의 큰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첫째는 어떻게 외국에서 들여온 사회복지 교육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연구 기반을 강화하여 토착화시키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의 양분화 현상을 어떻게 통합·조정하느냐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복지의 철학과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습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하느냐의 문제이다.

1) 研究基盤의 強化

현재 사회복지 교육자들이 느끼는 복지 의식의 위기는 단순히 제도가 미약하고 제정이 튼튼하지 못해서 야기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이 취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반의 취약성은 첫째, 사회사업 교육은 어떤 가치 기반에 의한 것이었는가? 둘째, 어떤 지식 기반에 의해 실시되었는가? 셋째, 사회복지 기술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의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치, 지식, 그리고 기술로 구성된 실천 활동이므로 이 세 가지 면에서 먼저 사회사업 교육의 취약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① 人間主義 價値의 再認識

사회복지는 관례적으로 정의, 공평, 인간 존엄성, 인도주의, 개인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례적 가치를 크게 인간주의로 묶을 수 있다고 보는 많은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사회복지가 인간주의 추구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주의는 보편성·자율성·협동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보편성이라 함은 인간사의 모든 갈등은 불에 뜬 거품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간적 감정의 공감대, 즉 연민, 박애, 자아 실현의 욕구, 선의 등 공유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이 보편성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사회복지의 자율성 원칙을 형성한다. 자기 결정권이란 복지 집행자가 목적을 결정하지 않고 수혜자로 하여금 스스로 각자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특성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어 인간의 상호 협력을 사회관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주의 정신에서 나오는 보편성·자율성·협동성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사회복지 연구는 가장 엄격하고 과학적인 규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사회복지의 가치인 인간주의를 이상적인 존재로 인정하여 선반에 올려 놓고 있는 유리된 연구 태도를 지녀 오지는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와 연구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형태는 인간주의 가치 문제를 무한한 탐구 대상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가치는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고 단지 철학적 관심의 독립된 영역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데 사회복지 연구의 첫번째 잘못이 있다.

② 狀況的 知識의 開發

사회과학에 있어서 지식은 일반적으로 '왜'에 대한 지식(knowledge for why)과 '어떻게'에 대한 지식(knowledge for how)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 현상의 이해를 돕는 지식이고 후자는 변화 지향적인 지식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자는 사회 및 인간 문제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다. 그리고 후자는 사회복지 실천의 직접적인 테크놀로지적인 지식이다. 지식의 성질상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왜'에 관한 지식보다 '어떻게'에 관한 지식이 실천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지적 관습은 '왜'에 관한 지식 체계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거기에서 제안된 정책적 제언에 의해 행위를 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 관계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지식에서 실천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선형식 지식의 발달을 생각해 왔다. 이러한 지적 관습은 객관적 지식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리로서 존재한다는 논리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른바 상황 초월적 지식(context-free knowledge)의 존재에 대한 가정으로 순수한 과학적 결과는 보편 타당성을 가짐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지식을 시·공간을 초월한 객관적 진리 형태로 상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식과 행위 간의 이분법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 지식을 위한 연구는 사회에서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식의 ‘선형적 개념’은 학계 등의 ‘지식 집단(people of knowledge)’과 서비스 실무의 ‘행위 집단(active group)’ 간의 간극을 형성시켰으며, 심지어 상호 불신의 벽을 쌓기도 했다. 즉, 지식 집단에서는 실무자들의 연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못해 편기 현상이 심하며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고, 실무자들은 학계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지식이 이론적이며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몰아부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실무에 있어서 지식의 감소를 가져와 지식의 누적은 어렵게 되었다. 요약한다면 know-why가 know-how 보다 우위라는 생각과 know-why로부터 know-how가 나온다는 ‘위계적 고정 관념’이 지식인 집단과 행동 집단 간의 협조 관계, 대등한 지식 교환 관계(지식인 집단은 know-why, 행동 집단은 know-how를 각각 개발하여 협동적으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관계)의 형성을 저지·저해해 온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상황적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여야 한다.

③ 實務技術의 發展

사회복지 서비스는 실천을 강조하므로 기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술이란 작업 능력이거나 도구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술은 지식을 실천 형태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이란 ‘방법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know-how의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know-how의 기여는 기술의 발달을 저해해 왔다. know-how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개발 연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분석·개발·평가·유도·체택의 5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험적인 종합을 얻는 방법이 충실히 실행됨으로써 know-how 지식이 증가하고 이 지식에 기초해서 기술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 분야에 있어

서 survey 중심의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만을 제공하였을 뿐 조사 개발 연구와 같은 종합적·실용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알맞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술 부족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자신감의 결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社會福祉學과 社會事業學의 連繫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은 1950년대 이후 사회사업학과명이 주류를 이루어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사회복지학과가 다수 생기게 됨으로써 양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 주제와 학생들의 관심사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각각 ① 사회사업 기술에 사회복지를 부가하는 형태, ② 사회복지 제도에 사회사업 기술을 부가하는 형태, ③ 사회정책에 사회사업 기술을 부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들 형태의 기본이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교육 이념에 따라 변화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실천적 연구와는 관계없이 외국의 학문 변화 추세와 국내의 사회적 여론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사업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두 학과가 모두 인간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기에 앞으로 사회사업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어떤 교과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사회복지학과와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의 목적과 형태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의 목적은 일반 사회복지 행정을 양성하는 대학 교과과정과 사회복지 정책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과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의 목적은 일반 사회사업가를 양성하는 학부 교과과정과 임상 사회사업가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1〉, 〈표 2〉 참조).

사회복지학과와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

〈표 1〉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목적

학 부	대 학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회복지 행정가 양성 · 사회 보장의 실천 방법 능력 배양 · 사회 보장의 주요 구성 요소(공적 부조, 사회 보험)에 대한 학습 · 사회복지 서비스 관리 운영 기법 습득 · 기초적 복지 이론과 기본적 실무 이론에 대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정책가 양성 · 사회 정책 이론 개발 능력 배양 · 사회 불평등과 빈곤 등의 사회문제 부분별 심층적 학습 · 국제 간의 사회복지 정책 비교 · 분석 연구

〈표 2〉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 목적

학 부	대 학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회사업가 양성 ·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 · 사회사업 실천시 기본적인 계 요소(가치, 지식, 원칙, 실천 과정)에 대한 학습 · 사회사업 기관이나 시설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 기법의 습득 · 기초적 이론과 기본적인 자원 모델에 대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 사업가 양성 · 임상적 치료 기법 개발 · 사회사업 실천의 특정 부분의 심층적 학습 · 각종 실천 모델의 학습과 상호 비교 연구

의 관심 대상은 동일하고 단지 그 해결 접근법이 제도적이냐 개인적이냐 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두 학과 간에는 공통 과목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사업학과를 대표하는 이화여대와 사회복지학과를 대표하는 서울대의 교과목을 비교할 때 알 수 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학사과정을 비교하면, 1학년 1 학기에 사회복지론을 강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개별·집단 지도론과 사회복지 정책론 등의 공통 과목이 전체 개설 과목의 2/3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학과를 강조하는 서울대에서는 한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제도 비

교론과 특강 등이 있고 사회사업학을 강조하는 이화여대에서는 대인관계론, 가족복지론, 사회사업 실천과 윤리 등의 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그 학과의 교육 목적에 충실하게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석사과정에서는 11개 기본 학과목에서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회사업 방법론과 사회복지 행정, 정책 등의 과목을 두 학교에서 모두 교육하고 있다. 다만, 서울대에서는 사회 계획과 대상별 복지 정책을 강조하고 이화여대에서는 사회사업 실습과 임상 기술 방법이 강조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사회사업 방법론, 사회복지 정책론 및 조사방법론 등 9개 과목이 공통된다. 다만 서울대에서는 복지경제학, 사회보장 분석 등의 과목이 돋보이고 이화여대에서는 인성 비교 연구와 가족복지 모형 연구 등의 임상적 부문이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화여대에서는 석사과정에, 서울대에서는 박사과정에 많은 학과목을 배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를 보이나, 각 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 수는 두 대학 모두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은 석·박사 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표 3〉, 〈표 4〉참조).

이상의 교과과정 분석을 볼 때 사회복지학과는 학부에서 일반 사회복지 행정가를,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가를 양성하고자 하고, 사회사업학과는 학부에서 일반 사회사업가를, 대학원에서는 임상 사회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와 사회사업학과가 이원적으로 존재하며 상호 보완해 가는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식으로 학부에서는 사회복지 행정가를 양성하고, 대학원에서는 정책가와 임상가를 양성하는 이원화 제도를 둘 것이냐의 문제는 한국의 가치관과 실제적 요구를 바탕으로 더욱 깊게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3) 實習教育의 效率化

실습 교육 문제는 사회 현실을 주요 대상으로

〈표 3〉 서울대·이화여대의 학사과정 전공 과목 이수 표준 형태 비교

학년	서울대		이화여대	
	1	2	1	2
1	사회복지론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자원의 이해 사회문제 접근론
2	사회문제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 한국 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발달사 빈곤 문제론	사회복지 조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 사회복지제도 비교론 사회복지 사상사 사회복지 행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 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행동장애와 사회환경 사회복지 정책론 개별 사회사업론 집단 사회사업론
3	개별 지도론 집단 지도론 사회 보장론 인구 정책론 노인 복지론	사회사업 실습 1 사회복지 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복지론 장애자 재활론 여성과 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론	조사 방법론 프로그램실시 정신의료사업론 노인 복지론 장애자 복지론	사회사업 실습 1 지역사회개발론 조사연습 대인 관계론 가족 복지론
4	사회사업 실습 2 사회사업통합방법론 사회복지 특강 사회복지 강독	산업사회사업론 사회 계획론 의료·정신사회사업론	조직 이론 사회 보장론 사회사업 실습 2	임상사례연구 사회사업 실천과 윤리 사회복지법제론

〈표 4〉 서울대·이화여대 대학원 교과과정 비교

	서울대		이화여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동부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개별 지도론, 집단 지도론, 지역사회 조직론, 사회사업 실습, 사회문제 분석론,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 분석, 사회사업 행정,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교정 복지론	사회복지(사업) 실천이론, 사회사업 방법론 연구, 사회복지발달사와 철학, 사회복지 정책론, 국제복지론, 보건 및 의료복지론, 사회복지 교육론, 고급 사회사업조사, 통계학적 분석방법		
차이부문	사회사업 이론 사회계획 사회정책 특강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의료 사회사업 인구문제 접근방법	사회사업실습 2·3·4 사회사업총론 임상 인간행동론 인간봉사정책과 전달체계 사회사업 기법연습 가족치료 사회사업 실천사례연구 한국 복지제도론 비교사회복지 제도론 고용과 소득보장 정책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지역사회 정신건강론 보건정책과 전달체계 사회변동과 가족복지	사회사업 지도감독론 사회복지 통합적 접근 사회사업 가치론 사회문제 접근방법 복지경제학 사회복지세미나·특강 사회보장분석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제도론 사회업법 지역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사업 조사연습	인성 비교연구 가족복지 모형연구 사회사업개입 모형개발 사회사업 현안문제 연구 사회과학 방법론

하는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중요한 교육 주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실습 기간중 실습 지도자의 부족, ② 실습 지도자의 자질 부족, ③ 학교와 기관과의 관계 결여, ④ 실습 내용과 절차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로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전개될 때 학점과 관계되어 나오는 문제들이다. 현재 실습에 대한 이수 학점은 3학점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3학점을 추가할 수 있다. 실습이 3~6 학점이라는 것은 외국에 비교해 볼 때 극히 낮은 학점 배정이다. 더욱이 3 학점 단위 한 과목일 경우 실습 과목 담당 교수 1 명이 50 명 안팎의 학생 실습 교육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실습은 주 1 일 이상 실습 기관에 나가 실습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 담당 교수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실습지 선정, 학생 배정, 실습 기관과의 접촉, 실습 관계 서류의 발송 및 접수 등의 제반 행정 업무 이외에 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매주 읽고 면담·지도한다는 것은 3 학점 3 시간 개념의 현 교육 체제로서는 무리한 실정이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에서는 실습 담당 교수 1명에 실습 교육 전부를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10 명당 실습 지도 교수 1 인제로 하는 실

습 과목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사회사업학과는 60 명의 전임 교수가 있고 그 중 20 여 명이 실습 전담 교수이다. 영국의 에딘버러대학 사회행정학과는 23 명 전임 교수 중 8 명이 실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실습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수가 실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한국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론과 실재를 집목시켜서 한국 사회사업 교육의 토착화에도 기여하는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습 과목 집단 전담제 수립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參考文獻>

- 김만두, 「실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1989.
 신성중, 「2000 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론 커리큘럼 방향」,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
 이혜경, 「복지사회와 사회복지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198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안내」, 「대학원요람」, 1990.
 장인협, 「사회사업실천 방법론 교과과정」, 한국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 1990.